

케이(K)-특허행정, 튀니지 본격 진출

- 특허청, 튀니지 특허청과 고위급 회의 및 초청 연수 개최(8.5.~8.9.) -
- 한국-튀니지 정보화 업무협약(MOU) 의제 마련 등 지재산 관련 정보화 협력 논의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8. 5.(월)~9.(금)까지 튀니지 특허청장 등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고위급 회의 및 초청 연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정보화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 그동안 ARIPO*(아프리카 정부 간 지식재산권기구), 이집트와 협력을 추진한 데 이어 튀니지에 특허행정시스템(이하 ‘특허넷’)을 보급함으로써 아프리카와의 특허행정 정보화 협력 범위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

이번 고위급 회의 및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사업(약 373만불)으로 추진 중인 ‘특허넷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(’23~’27)’(이하 ‘튀니지 정보화 사업’)의 일환으로 개최된다. ‘튀니지 정보화 사업’은 ▲튀니지 특허넷 구축 및 유지보수 ▲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 ▲특허넷 구축을 위한 기자재 조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
김완기 특허청장은 8. 6.(화)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(대전시 서구)에서 튀니지 특허청장(Mr. Nafaa BOUTITI)과 청장 환담을 갖고 특허청 정보화 현황 등을 소개한다. 이어서 한-튀니지 고위급 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지재산 관련 정보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.

튀니지 특허청장 등은 연수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기술(노하우) 및 지식재산(IP) 정보화 발전 경험 등을 공유받고, 기업 연구단지 방문(8.8, LG사이언스파크 내 LG이노베이션 갤러리)을 통해 기술혁신을 체험할 예정이다.

김완기 특허청장은 “튀니지 정보화 사업은 우리의 특허넷을 7번째* 수출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매우 뜻깊은 일”이라며 “튀니지 정보화 사업을 계기로 더 많은 국가에 특허행정 노하우를 전수해 지식재산 한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* 몽골(’10), 아제르바이잔(’11), ARIPO(’13), UAE(’16), 파라과이(’19), 이집트(’19)

※ ‘KOICA 튀니지 정보화 사업’ 고위급 초청 연수 계획

※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
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정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일승 (042-481-5460)
		담당자	사무관	현승우 (042-481-5112)

붙임

‘KOICA 튀니지 정보화 사업’ 고위급 초청 연수 계획

□ 튀니지 고위급 초청 배경

- 튀니지에서 수행 중인 KOICA*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튀니지 고위 공무원 대상 한국의 선진 행정 및 최신 기술 관련 경험 전수

* 한국국제협력단 (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)

〈 ‘KOICA 튀니지 산업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’ 개요 〉

- (사업기간/금액) ‘23. 5. ~ ‘27. 2. / 373만불(약 42억원, KOICA 예산)
- (사업목적) 산재권 공공행정 정보화 지원을 통해 튀니지의 산재권 업무 효율성 및 산재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, 한국과의 우호협력·상호교류 증진에 기여
- (주요내용)
 - IP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및 대민 포털 시스템 구축 및 기자재 보급
 - 사업 대상기관인 튀니지 특허청(INNORPI)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

- 한-튀니지 간 정보화 분야의 우호적 환경 조성 및 특허행정 정보화 관련 지속적인 협력 방안 논의 등

〈 초청 연수 개요 〉

- (일정 및 장소) 8. 5.(월) ~ 8. 9.(금), 특허청(대전) 및 특허정보원 등
- (참석자) 튀니지 특허청장 Nafaa BOUTITI, 지재권 국장, IT 부서장 등 3인
- (내용) 정보화 사업 협의, 특허행정 노하우 공유 등